

‘ㄹ~ㄹ’ 표기의 공존에 대한 음운론적 해석

이진호*

1. 머리말

국어 음운사 연구를 위한 일차적인 자료는 옛 문헌들이다. 옛 문헌들에 나타난 표기들을 통해 우리는 현대국어 이전 시기의 국어가 어떠한 음운론적 특징을 가졌는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표기는 말소리를 있는 그대로 담아 내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옛 문헌들을 통해 국어 음운사 연구를 할 때에는 해당 문헌에 드러나 있는 표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간행된 문헌들은 현실음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음소적 표기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국어 시기가 되면 그 이전 시기에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표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표기들은 실제 발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기이한 것들이다. 이 글에서 살펴볼 ‘ㄹ~ㄹ’의 표

* 박사과정

기 역시 근대국어 시기에 들어오면서 일반화된 특수한 표기 양상 중의 하나이다. 즉 ‘홀른, 썰리’ 등과 같이 이전 시기에는 어중에서 ㅍ로 표기되던 것들이 근대국어 시기에 들어오면서 ‘홀른~홀논, 썰리~썰니’와 같이 ㄹ으로 표기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들 형태 중 ㅍ로 표기되는 것이 원래의 것이고 ㄹ으로 표기되는 것은 새로이 출현한 특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국어가 시작되는 17세기 무렵에는 아직 ‘홀른, 썰리’와 같이 ㅍ로 표기하는 경향이 ‘홀논, 썰니’와 같이 ㄹ으로 표기하는 경향보다 훨씬 강했다. 그런데 18세기에 들어서면 오히려 ㄹ으로 표기되는 경향이 원래의 ㅍ로 표기되는 경향을 앞지르게 된다. 그리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ㄹ으로의 표기는 20세기 전기에 나온 문헌들에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ㄹ~ㅍ’의 표기 양상이 단순히 표기법적인 차원에서의 특수성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근대국어 표기법의 한 특징으로서만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기라는 것이 언어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상, 이러한 표기가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모종의 언어 사실과 관련을 맺고 있을 가능성은 무척 높다고 하겠다.

이 글은 ‘ㄹ~ㅍ’ 표기의 공존이 어떤 이유로 일어나게 되었으며, 무슨 이유로 17세기 이후에 확산되기 시작했는지를 밝히는 데 논의의 목적을 둔다. 특히 ‘ㄹ~ㅍ’의 표기가 당시의 음운론적 특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논의를 진행시키기로 한다. 이 글에서 다룰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文獻名稱	刊行年度	略稱	文獻名稱	刊行年度	略稱
續三綱行實圖	1514	속 삼	伍倫全備諺解	1721	오 룬
繡譯小學	1518	번 소	女四書諺解	1736	여 사
正俗諺解初刊本	1518	정 초	御製常訓諺解	1745	상 훈
順天金氏諺簡	16C 중기	순 김	十九史略諺解	1772	십 구
六字神呪	1560	육 자	明義錄諺解	1777	명 의
小學諺解	1588	소 언	武藝圖譜通志	1790	무 예
諺解胎產集要	1608	태 산	增修無冤錄諺解	1792	증 수
諺解疴瘡集要	1608	두 창	正俗諺解重刊本	18C 말엽	정 속 중
禪家龜鑑諺解	1610	선 가	敬信錄諺釋	1796	경 신
東國新續三綱行實圖	1617	동 신	園閣叢書	1869	규 합
杜詩諺解重刊本	1632	두 시 중	南宮桂籍	1876	남 궁

文獻名稱	刊行年度	略稱	文獻名稱	刊行年度	略稱
勸念要錄	1637	권념	過化存神	1880	과화
辟瘟新方	1653	벽신	敬惜字紙文	1882	경석
警民編諺解改刊本	1658	경민개	關聖帝君明聖經	1883	관성
馬經抄集諺解	17C 후반	마경	諺解		
老乞大諺解	1670	노언	勸往文	1908	권왕
			朝漢四禮	1925	조한

2. 이전 논의들에 대한 검토

‘ㄹ~ㄴ’의 혼기(混記)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다. 17세기 국어나 18세기 국어와 같이 개별 시기의 국어를 논하는 자리에서도 그 사실이 지적되었으며, 근대국어의 표기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혼기의 존재가 지적되었다.

지금까지 논의된 연구사는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ㄴ표기가 실제 발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ㄹ표기가 실제 발음이 아니며 ㄹ과 동일한 음가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ㄴ표기가 실제 발음을 반영했다고 보는 입장에는 전광현(1978), 오종갑(1988), 지춘수(1986), 전미정(1991), 신연희(1991), 박기영(1995) 등이 있다.

전광현(1978)에서는 ㄹ표기에서 뒤에 오는 ㄹ은 음운론적으로 /r/에 더 가까우며 동일 위치의 /n/과 중화되는 과정을 표시해 주는 것이 바로 ㄴ표기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ㄹ에서 뒤에 오는 ㄹ이 /l/과 /n/의 중간음에 가깝기 때문에 ㄴ표기가 가능했다고 주장함으로써 ‘ㄹ~ㄴ’의 표기가 음운론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인지 음성적인 차이만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음성적 차이가 왜 이 시기에 와서 생겨났고 그 이후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발음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다.

지춘수(1986)에서는 ㄹ과 ㄴ이 일정한 환경에서 통용(通用)될 수 있는 음가

를 가졌기 때문에 ㄹ과 ㄴ의 표기가 공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정한 환경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음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음성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해명이 없으며, 것처럼 통용될 수 있던 ㄹ과 ㄴ이 그 이후에는 어떠한 음성적 변화를 거쳐 통용될 수 없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부족하다.

오종갑(1988)과 전미정(1991)은 ㄴ표기가 모두 음운론적인 과정을 나타내며 ㄴ의 ㄴ은 ㄹ의 두번째 ㄴ이 폐음화되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어두의 ㄴ이 ㄴ으로 바뀌는 것과 비슷하게 ㄹ의 두번째 ㄴ이 ㄴ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어에서 비어두의 ㄴ은 장애음이나 비음 뒤에서가 아니면 결코 ㄴ으로 바뀌지 않는다.¹⁾ 또한 어중의 ㄹ 사이에서 두번째 ㄴ을 ㄴ으로 폐음화시킬 만한 어떠한 음운론적 동기도 찾기가 힘들다. 더욱이 ㄴ으로 표기되던 것들은 현대국어에 모두 [ll]로 발음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ㄹ>ㄴ>ㄹ'의 순환적인 변화가 국어 음운사에 존재했다고 보아야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ㄴ연쇄를 제한하는 음운론적 제약은 16세기 경에 생겨서 그 이후 계속 확대되는데²⁾ 이러한 제약을 여기게 하는 변화가 비슷한 시기에 다시 발생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신연희(1991)에서는 ㄹ에서 선행하는 ㄹ과 후행하는 ㄴ은 모두 같은 음소 /l/에 속하지만 그 변이음으로의 실현은 다르며 이러한 상이한 변이음의 실현을 인식한 결과 ㄹ과 같은 표기가 나오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l/의 변이음을 표기하기 위해, /l/과 음소적으로 대립하는 /n/을 표기하는 데 사용하는 문자 ㄴ을 사용한다는 가정은 무리가 많이 따른다. 또한 변이음으로의 실현이 다르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 또한 부족하다.

박기영(1995)는 표면상으로 ㄴ표기가 [ㄹ]로 발음되었다고 본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논의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ㄴ 뒤에 오는 ㄴ의 발음을 ㄴ과 혼동

1) 이승녕(1971)에는 어중의 ㄴ이 ㄴ으로 바뀌어 표기되는 예들이 제시되어 있다. 가령 '구눔[<구름>(두시중 11:17)]에서는 ㄴ이 ㄴ으로 바뀌어 있다. 그러나 '서를케[<서늘케> 훈긔대(두시중 6:45), 거를여[<겨늘려>(십구 2:75)]의 예에서와 같이 ㄴ이 ㄹ로 표기된 예들도 역시 존재하고 있음을 볼 때, '구눔'과 같이 어중의 ㄴ이 ㄴ으로 바뀌어 표기되는 것을 음운 변화의 반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근대국어 시기에 일부 문헌에서 어중의 ㄹ과 ㄴ이 서로 혼동되어 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2) 여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졸고(1997:88~94)를 참조하기 바란다.

한 결과 ㄹ의 표기가 가능했다고 설명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ㄴ표기가 실제 발음을 반영한 것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ㄹ이 실제 발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존재한다. 또한 이 논의에서는 현대국어에서도 ㄹ 뒤의 ㄹ이 ㄴ과 비슷한 음가를 가진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간다.

이에 비해 'ㄹ~ㄴ'의 표기가 실제 발음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이는 측에서는 ㄹ로 표기되든지 ㄴ으로 표기되든지 이러한 표기들은 모두 음성적으로 [l]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논의에는 김동언(1990), 백두현(1992), 김혜영(1996), 김종진(1997) 등이 있다.

김동언(1990), 백두현(1992)는 원래 ㄹ이었던 것들을 ㄴ으로 적을 수 있었던 이유가 유음화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즉 ㄹ을 ㄴ으로 표기해도 결국은 유음화의 적용을 받아서 [l]로 발음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ㄹ~ㄴ'과 같은 표기가 유음화와 관련이 있다고 했을 때는 유음화가 역사적으로 개재자음을 필요치 않는 직접 동화였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유음화가 직접 동화가 아니었다면 비록 표기 차원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중의 ㄹ에 대해 유음화와 관련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유음화의 생성 및 발달에 대한 자세한 고찰이 뒷받침되어야만 완전한 설명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런 점에서 김동언(1990), 백두현(1992)의 논의는 사실에 대한 설명 차원에서 볼 때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겠다.

김혜영(1996), 김종진(1997) 역시 ㄹ과 ㄴ의 표기는 동일한 음가를 지닌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혜영(1996)은 ㄴ을 [l]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이들이 현대국어에 모두 [l]로 발음되며 근대국어 당시에 ㄹ과 ㄴ은 음연결에 있어 제약을 받기 때문에 ㄹ이 [ln]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논의는 'ㄹ~ㄴ'의 표기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전의 연구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ㄹ~ㄴ'의 표기가 서로 다른 음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분명해졌다. 위에서도 밝혔듯이 ㄹ이 [ln]으로 발음되었다고 보기에는 국어 음운사적으로 볼 때 납득되지 않는 사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ㄹ~ㄴ'의 표

기는 모두 동일한 음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근대국어가 시작되는 무렵을 전후해서 이러한 표기 양상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김동언(1990)이나 백두현(1992)에서 ‘ㄷ~ㄹ’의 표기를 유음화와 관련시킨 것은 사실의 규명 차원에서 그 이전의 논의에 비해 진일보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이 두 논의는 유음화 자체에 대한 통시적 규명을 빠뜨리고 있으며 매우 소략한 논의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ㄷ~ㄹ’의 표기가 가지는 음운론적 의미를 충분히 밝혀 내지는 못했다.

또한 문헌의 표기가 어떤 음변화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ㄷ~ㄹ’ 표기에서와 같이 음변화의 방향과 반대로 표기하는 경우는, 해당 음변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음변화가 완전히 정착되고 나면 더이상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ㄷ~ㄹ’의 표기 양상은 16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약 4세기에 걸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문헌에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 4세기라는 오랜 시간 동안 ‘ㄷ~ㄹ’의 표기가 지속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들 표기가 유음화와 관련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음화라는 음운현상 이외에 다른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무척 큼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유음화의 역사적인 발달 과정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ㄷ~ㄹ’ 표기의 공존이 나타날 수 있게 된 결정적 이유를 유음화에서 찾고자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ㄷ~ㄹ’ 표기가 오랜 시간동안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를 유음화 이외의 것에서도 찾아 봄으로써 이전의 기술들이 가진 불완전함을 극복하고자 한다.

3. ‘ㄹ~ㄹ’ 표기에 대한 음운론적 해석

3.1. ‘ㄹ~ㄹ’ 표기의 실례(實例)

‘ㄹ~ㄹ’의 표기 양상은 주로 17세기부터 나타난다. 그러나 16세기에도 이러한 표기 양상이 부분적으로나마 존재하고 있음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특히 어떤 표기가 모종의 다른 음운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해당 표기의 출현 연대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16세기부터 17, 18세기에 걸쳐, 또는 그 이후의 시기에 나타나는 ‘ㄹ~ㄹ’의 표기 양상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ㄹ~ㄹ’의 표기 용례를 각각의 시기에 따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³⁾

- (1) 흘논(속삼 열 24, 흘론) 놀납고(육자 25, 놀랍-)
- (2) ㄱ. 불너(동신 충 1:10) 불노몰(두시중 15:7) 올나(동신 열 2:85) 덜너(동신 열 2:86) 불나(마경 상 19)
 - ㄴ. 흘노(동신 열 6:16) 날노(경민개 8)
 - ㄷ. 멀니(마경 상 16)
- (3) ㄱ. 날너(여사 4:22) 흘너도(정속중 3) 흘넛터니(여사 4:30) 달나도(정속중 5) 질너(경신 6, 지르-) 놀너(무예 16) 불너(오륜 2:38) 물너(가기롤(십구 1:5) 올너(정속 중 38) 올니며(명의 2:22) 썰니(명의 1:6)
 - ㄴ. 진실노(여사 1:3) 흘노(여사 3:78) 절노(정속중 5) 알노빠(십구 1:102) 칼노빠(무예 14) 별노(중수 1:38) 널노 더브리(명의 2:23)
 - ㄷ. 들니디(여사 1:4) 멀니(여사 3:78, 정속중 24) 실너(상훈 9) 열넛고(오륜 7:26)
- (4) ㄱ. 아올너(관성 7) 굴너(관성 13) 물너(가니(과화 18) 널니(남궁 1)
 - ㄴ. 진실노(관명 16) 칼노(관명 17) 흘노(남궁 1) 실노 동혀(규합 10) 길노(과화 18)
 - ㄷ. 닛토지 말나(관성 21) 가르쳐 달나(경석 4)
- (5)⁴⁾ ㄱ. 놀납고(권왕 1) 올니면(조한 21)

3) 여기서는 편의상 ㄹ으로 표기된 것들만 제시하기로 한다.

- 나. 홀노(권왕 19) 명주실노(조한 19)
 다. 살녀 주마(권왕 4) 파지 말나(조한 33)

위의 예들은 16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각 문헌들에 나타나는 ㄹ표기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ㄱ은 형태소 내부의 ㄹ이 ㄹ으로 표기된 것을 나타내며 ㄴ은 체언의 곡용에서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둔 ㄹ이 ㄹ으로 표기된 것을 나타내고 ㄷ은 용언의 파생 또는 활용에서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둔 ㄹ이 ㄹ으로 표기된 것을 나타낸다.

(1)은 16세기에 나타나는 표기들로 위의 예가 거의 전부라 할 정도로 그 수가 적다. 또한 표기가 나타나는 환경도 형태소 내부에만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는 17세기에 나타난 ㄹ표기 예인데 16세기에 비해 그 수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나타나는 환경도 훨씬 다양해졌다. 17세기의 경우에는 ㄹ표기가 나타나는 문헌도 그 이전에 비해 훨씬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17세기에는 ㄹ로 적는 빈도가 ㄹ으로 적는 빈도보다 많이 우세하다.

(3)은 18세기에 나타나는 ㄹ표기인데, 18세기 전기에 나온 문헌들은 아직 17세기의 경우와 같이 ㄹ로 적는 빈도가 더 높다. 그런데 18세기 후기에 들어서면 문헌에 따라 ㄹ으로 적는 표기 빈도가 ㄹ로 적는 표기 빈도보다 훨씬 우세하게 나타나기도 한다.⁴⁾ 19세기 자료인 (4)에서도 이러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18세기와 비교했을 때 ㄹ표기의 절대적 빈도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한편 20세기에 나온 문헌들에서도 ㄹ의 표기를 찾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ㄹ~ㄹ’의 표기 양상은 16세기에 미약하나마 나타나기 시작했고 17세기에 그 세력이 확장되어 18세기에 전성기를 이룬 뒤 그 이후에도 약 2세기 정도의 시간 동안 계속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ㄹ~ㄹ’의 표기가 16세기에 희박하게 나타나다가 17세기부터 확대되기 시작하는 것을 단순히 표기법적인 사실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수만은 없

4) 여기에 제시되는 20세기 자료들은 백두현(1992:321)에 제시된 자료 중 일부를 가져왔음을 밝혀 둔다.

5) 대표적인 문헌이 明義錄諺解이다.

다. 왜냐하면 15세기의 모든 문헌에서 ㄹ로 적히고 있던 것을 갑자기 16세기 이후에 ㄴ으로 적을 만한 표기법적인 일대 사건이 있었다고 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ㄹ과 ㄴ은 엄연히 구별되는 자음들이므로 ㄹ과 ㄴ이 혼기된다는 것은 이들 자음들이 연루되어 있는 모종의 음운변화가 그 당시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렇지만 그 모종의 변화가 실제로 ㄹ을 ㄴ으로 변화시키는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ㄹ~ㄴ’ 표기가 변화의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의 ㄹ이 ㄴ으로 바뀐다는 변화 자체가 국어 음운사에서 특이하기 때문이다.

ㄹ을 ㄴ으로 표기하는 경향이 나타난 시기는 ㄴ을 ㄹ로 변화시키는 유음화의 발생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⁶⁾ 그런데 만약 ㄹ을 ㄴ으로 변화시키는 음변화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이 변화의 출력형은 유음화 규칙의 입력형이 되고 다시 유음화 규칙의 출력형은 ㄹ을 ㄴ으로 변화시키는 음변화의 입력형이 됨으로써 이 두 규칙 간에는 끊임없는 상호 반복적용의 상태가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통시음운론의 영역에서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ㄹ~ㄴ’의 표기가 실제 발음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이다.

ㄴ이 표기 그대로 발음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국어 음운사에서 ㄴ이 ㄹ로 바뀌는 유음화 규칙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ㄹ~ㄴ’의 표기가 유음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무척 큼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는 유음화의 통시적 양상이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ㄹ~ㄴ’의 표기 양상에 대한 음운론적 해석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3.2. ‘ㄹ~ㄴ’ 표기와 유음화

유음화의 통시적 양상을 고찰함에 있어서 ‘ㄹ~ㄴ’ 표기 양상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둔다면 두 가지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로 ‘ㄹ~ㄴ’의 표기가 유음화와 관련이 깊다고 했을 때 ㄹ을 ㄴ으로 적는

6) 이 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3.2.에서 이루어진다.

표기가 등장한 시기에는 이미 유음화도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유음화가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유음화와 관련된 표기가 생겨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음화의 발생시기와 ‘ㄹ~ㄴ’의 표기가 등장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일치함을 보여야만 할 것이다. 만약 유음화의 발생시기와 ‘ㄹ~ㄴ’ 표기의 등장시기가 현저한 차이를 보일 때는 ‘ㄹ~ㄴ’의 표기를 유음화와 관련시킬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ㄹ을 ㄴ으로 표기하는 것을 유음화와 관련시키기 위해서는 유음화가 통시적으로 직접동화였다는 사실을 밝혀 내어야만 할 것이다. ㄹ 사이에는 어떠한 개재자음도 없기 때문에 만약 ㄹ을 ㄴ으로 적는 것이 유음화와 관련되는 것이라면 이 때의 유음화는 역사적으로도 직접동화가 되어야 한다.

우선 유음화의 반영으로 생각되는 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6) ㄱ. 일룬(소언 5:67, 잃-) 일룬나라(소언 5:90, 잃-)
 ㄴ. 열라문(번소 9:5, 열나문) 열릴구베(속삼 효 29, 열닐굽)
 ㄷ. 벼술 로픈(정초 8), 블 란(순김 54)
 ㄹ. 놀란(선가 49, <놀나-)

(6)은 중세국어 시기에 나타나는 유음화의 예이다. (6ㄱ)은 ㄹ자음군을 가진 어간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ㅎ이 탈락하고 유음화가 적용된 모습을 보여 준다. (6ㄴ)은 합성어가 형성될 때 유음화가 적용된 모습을 보여 주며 (6ㄷ)은 단어 경계를 넘어서도 유음화가 적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6ㄹ)은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 유음화의 예이다.⁷⁾

15세기에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던 유음화는 16세기 초기에 그 모습을 보이

7) ‘놀나’는 기본적으로 명사 ‘놀(力)’과 동사 ‘나(出)’의 합성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놀나’에 들어 있는 ‘나’의 성조 변동이 단음절 동사어간 ‘나’의 경우와 유사하다는 것은 ‘놀나’가 합성어일 가능성을 더욱 높여 준다. 그러나 (6ㄹ)에 사용된 ‘놀나(勇猛)’의 의미는 이미 ‘놀(力)’과 ‘나(出)’의 공시적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놀나’가 통시적으로 합성어일 가능성이 높지만 중세국어 공시적으로는 이미 단일어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놀란’을 형태소 내부에서 유음화가 적용된 예로 분류하였다. 이것은 합성이 경계의 약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논의는 이현희(1991)을 참조하기 바란다.

기 시작한다. 흥미로운 것은 (6ㄴ, ㄷ)에서와 같이 합성어 경계나 단어 경계 사이에서의 유음화가 (6ㄱ)이나 (6ㄷ)과 같은 활용이나 형태소 내부에서보다 먼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6ㄴ, ㄷ)의 경우 문헌의 간행 시기가 16세기 중엽 이전으로 (6ㄱ)이나 (6ㄷ)의 예를 보여 주는 문헌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 그러나 단어 경계나 합성어 경계 사이에서 유음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때, 단어 경계나 합성어 경계보다 약한 경계가 개재하는 활용과 형태소 내부에서의 유음화도 16세기 중엽 이전에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몹시 크다고 할 수 있겠다.

- (7) ㄱ. 알룬디(태산 51, 알-) 슬로라(두시중 3:23, 25:29, 슬-) 알르니라(두창 상 10, 알-) 알르니룰(두창 상 62) 알룬(두시중 25:27) 알룬디(마경 하 69) 알룬(마경 하 7) 쉰룬(마경 하 42, 두창 상 36)
- ㄴ. 솔림(벽신 14) 값룰(두시중 15:19) 실랏 곤도다(두시중 25:13, 실랏) 이십 일련의(권념 18, 이십일년) 열랏(노연 상 20, 열랏) 열레(권념 14, 열네)
- ㄷ. 열 라(벽신 8, 열 나) 블 라(동신 효 6:48, 블 나) 블 라거늘(동신 열 1:56) 블 로코(동신 열 3:63)
- ㄷ. 날라며(동신 총 1:40, 49, 66)

(7)은 근대국어 시기에 보이는 유음화의 예이다. 16세기와 비교해 볼 때 유음화가 적용되는 환경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미 16세기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 유음화가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유음화가 적용된 용례가 16세기에 비해 많이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즉, 16세기에 부분적인 모습만을 보이던 유음화는 17세기 이후에 상당히 많은 용례를 보이게 된 것이다. 특히 용언 어간의 활용에서 유음화의 예가 많아졌다.

그런데 (7ㄱ)을 자세히 보면 상당히 특이한 사실이 관찰된다. 즉 용언의 활용에서 적용되는 유음화는 ㅅ자음군을 가진 용언 어간에서만 그 모습을 보이고 나머지 자음군을 가진 어간들은 표기상으로 볼 때 유음화의 적용을 보여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가령 ‘뵤+는, 늣+는’의 경우 근대국어 시기에 간행된 문헌에는 한결같이 유음화가 반영되지 않고 ‘뵤는, 늣는’ 등과 같이 표기되고 있다. 현대국어의 ‘뵤+는, 늣+는’은 자음군 단순화의 결과 비, ㄱ이 탈락하는 경우에 [발린],

[일른]으로 발음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근대국어의 경우에도 ‘붉+는, 남+는’에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서 ㄹ 대신 ㄹ과 ㄱ이 탈락하게 되면⁸⁾ 유음화의 적용을 받아서 ‘불른, 일른’이 될 것 같은데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⁹⁾

이제 유음화의 역사적 출현 및 확산 과정과 ‘ㄹ~ㄹ’ 표기의 출현 및 확산이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 살펴보겠다. (1)~(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ㄹ~ㄹ’ 표기의 출현은 16세기부터 나타나지만 그 시기에는 아직 ㄹ 표기의 출현 빈도가 현저히 낮았다. 그러다가 17세기에 들면서 ㄹ의 표기 빈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양상은 유음화의 확산 과정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유음화 역시 16세기부터 나타나지만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많은 용례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의 어중 ㄹ은 유음화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즉, 16세기의 유음화는 아주 강한 세력을 가진 음변화는 아니었던 것이다. 유음화가 아직 강한 세력을 가지지 못했으므로 ㄹ을 ㄹ으로 적는 표기 역시 16세기에는 극히 부분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17세기 이후가 되면 유음화는 그 세력을 널리 확장하게 된다. 유음화의 세력이 확장됨으로써 ‘ㄹ~ㄹ’의 표기 역시 확장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이 두 가지 과정이 서로 일치하고 있음은 이 둘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분명히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음화의 등장 및 확산과 ‘ㄹ~ㄹ’ 표기의 출현 및 확산은 시기적으로 볼 때 잘 대응하고 있다. 유음화가 역사적으로 직접동화였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면 유음화와 ‘ㄹ~ㄹ’ 표기의 관련성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유음화가 역사적

8) ㄹ이 선행하는 자음군에 대한 자음군 단순화 적용의 통시적 양상은 졸고(1997:63~80)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진 바 있다.

9) 졸고(1997:93)에서는 유음화가 역사적으로 직접동화였음을 밝히고, 근대국어 시기에 음절 말에 오는 자음군을 표기함에 있어서는 아직 자음군 단순화를 반영한 표기보다 음절말 자음군을 그대로 표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음을 지적한 뒤 이러한 표기적인 특성이 ㄹ, ㄹ 등의 자음군에 적용된 유음화를 표기에 반영할 수 없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근대국어 시기에는 실제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표기에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럴 경우 ㄹ, ㄹ과 같은 자음군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표기상 ㄹ과 ㄴ 사이에는 ㄱ, ㄹ과 같은 개재자음이 놓인다. 그런데 유음화는 역사적으로 볼 때 직접 동화였기 때문에 비록 표기라 하더라도 개재자음이 놓인 상태에서는 유음화의 존재를 표기에 반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으로 직접동화였는지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¹⁰⁾

첫째, 유음화가 간접동화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음화의 동화주인 ㄹ과 ㄴ이 직접 결합하는 경우, 즉 ㄹ과 ㄴ 사이에 개재자음이 없는 경우에는 유음탈락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령 중세국어 시기에 단일한 어간말 자음 ㄹ을 가지고 있던 어간 '알-(知), 일-(成)' 등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되면 그 활용형이 '아는, 이는'과 같이 되어, 어간의 ㄹ은 후행하는 어미의 ㄴ을 유음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ㄴ 앞에서 탈락하고 만다. 이런 사실을 들어 유음화를 간접동화로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ㄹ과 ㄴ이 직접 결합하고 있는 음연쇄는 있을 수 없다는 전제를 논의의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러나 유음화가 적용될 당시의 활용상을 살펴보면 ㄹ과 ㄴ이 직접 결합할 수 있었음을 알게 된다.

(8) 할넛다(月印釋譜 9:36, 𑖙-) 글논(月印釋譜 1:29, 𑖙-) 알논(杜詩諺解初刊本 9:16, 𑖙-) 글논(施食權功 進 49, 𑖙-)

(8)은 중세국어 시기에 𑖙자음군을 가지고 있던 어간들이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의 활용형을 보여 주고 있다. (8)에서 𑖙자음군의 ㅎ은 ㄹ과 ㄴ 사이에서 탈락하고 ㄹ과 ㄴ은 직접 결합하게 된다. 그런데도 이 때는 유음탈락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ㄹ과 ㄴ이 직접 결합해도 유음탈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유음탈락의 적용을 막기 위해 유음화의 적용에 개재자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태도에 대해 재고를 요구한다. (8)과 같은 활용형들은 유음화가 적용될 무렵에도 유음탈락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유음화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앞서 (67)에서 볼 수 있듯이 ㄹ과 ㄴ이 직접 결합하고 있던 활용형에서 유음화가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유음화가 역사적으로 간접동화가 아닌 직접동화

10)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여기서는 활용의 경우만을 문제삼기로 한다. 유음화가 직접동화인가의 여부는 유음화의 동화주인 ㄹ과 피동화주인 ㄴ 사이에 개재자음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아야만 한다. 그런데 이것은 어간말에 자음군을 가진 용언 어간의 활용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활용의 경우만을 살펴보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였음을 분명히 말해 준다.

한편 현대국어에는 ㄹ이 ㄷ 이외의 자음 뒤에서 ㄴ으로 바뀌는 과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과정은 유음화가 나타나던 16세기에도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법네룰(소언 범 3, 법례), 상늑장괴룰(번소 10:10, 상륙장괴), 풍뉴(정속 6, 풍류), 동뉴예(효경 17, 동류)].¹¹⁾ 만약 유음화가 역사적으로 간접동화였다면 ‘읽+는, 밭+는’은 유음화의 적용을 받게 되면 ‘읽른, 밭른’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유음화의 출력부인 ‘읽른, 밭른’은 다시 ㄱ, ㅂ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바뀌는 음변화의 입력이 되고 만다. 그리고 여기에 그 과정이 적용되면 이번에는 그 결과가 ‘읽는, 밭는’이 되어 다시 유음화의 입력이 된다. 즉 유음화의 출력은 ㄹ이 ㄴ으로 바뀌는 변화의 입력이 되고 ㄹ이 ㄴ으로 바뀌는 변화의 출력은 다시 유음화의 입력이 됨으로써, 서로 간에 끊임없는 반복적용의 상태가 예측된다. 통시적으로 볼 때 생산성을 가진 A라는 음운변화와 B라는 음운변화가 있을 때, 어느 한편의 적용이 다른 한 편의 적용을 무효화시키면서 상대편 변화의 적용에 대한 입력부를 새로 만들어 내는 상황은 거의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은 유음화가 역사적으로 간접동화가 아님을 말해 주는 것이다.

또한 (6)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음화는 16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유음화가 역사적으로 직접동화가 아닌 간접동화였다면 16세기 무렵은 아직 ㄹ이 선행하는 자음군의 경우 아직 자음군 단순화를 겪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으므로 유음화를 적용받은 예가 많이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ㄹ이 선행하는 자음군이 음절말에서 모두 발음되므로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경우 ㄹ과 ㄴ 사이에는 항상 개재자음이 놓임으로써 간접동화로서의 유음화가 가진 구조 기술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ㄹ과 ㄴ 사이에서 ㅎ이 반드시 탈락하던 ㄹㅎ자음군을 제외하면 나머지 자음군은 유음화를 적용받은 예가 없다. 즉 음절말에서 자음군이 모두 발음되던 ㄹ, ㄹㅎ 등은 뒤에 ㄴ으로 시

11) ㄹ 이외의 자음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바뀌는 과정은 15세기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5세기의 한자음은 대부분 東國正韻式 한자음 표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東音으로 적힌다고 하더라도 漢字의 원래음을 적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음운 현상이 존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ㄹ 이외의 자음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바뀌는 변화는 16세기에 보이는 것들이 확인 가능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작하는 어미가 와도 유음화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유음화가 역사적으로 직접동화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는 유음화가 역사적으로 직접동화되었음을 말해 주기에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다만 유음화를 직접동화로 봄으로써 유음 탈락과 유음화의 역사적 상호 관련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문제는 활용이나 곡용에 있어서 음변화의 입력 단위가 무엇인지를 고려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가령 ‘맵-’ 어간에서 ㅁ의 변화나 ‘프-’ 어간에서의 원순모음화 양상을 살펴보면 ㅁ의 변화나 ‘으’의 원순모음화가 어간의 기저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어간이 어미와 통합한 활용형에 적용됨을 알 수 있다.¹²⁾

이러한 사실을 유음화와 유음 탈락의 문제에 적용시켰을 때 ‘알-, 일-’ 등과 같이 단일 자음 ㄹ을 가진 어간이 유음화가 적용되기 시작한 뒤에도 유음화의 적용 대신 유음 탈락만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즉 ‘알-, 일-’과 같은 어간은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한 활용형이 ‘아는, 이는’과 같이 되어 유음화의 동화주가 되는 ㄹ을 활용형에서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음화가 생겨난 이후에도 ‘알-, 일-’의 활용형 ‘아는, 이는’에서는 유음화의 동화주 ㄹ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유음화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반면에 ‘얹-, 잃-’과 같은 어간은 유음화가 적용될 때의 활용형이 ‘알는, 일는’이었기 때문에 유음화의 적용이 가능했던 것이다.

유음화와 ‘ㄷ~ㄹ’ 표기의 출현 및 확산 시기가 일치하며 유음화가 역사적으로 직접동화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유음화와 ‘ㄷ~ㄹ’ 표기의 상관성을 더이상 부인할 수 없다. 이처럼 유음화와 ‘ㄷ~ㄹ’ 표기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했을 때 결국 ‘ㄷ~ㄹ’ 표기 중 ㄹ은 유음화에 대한 과도교정(hypercorrection)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야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ll]로 발음되는 음연쇄에 대해 이것이 실제로는 ‘ㄷ+ㄴ’의 연쇄에서 유음화의 적용을 받아서 나온 것으로 해석하고 원래의 ㄷ마저 ㄹ으로 바꾸어 표기한 것이다. 어떤 음변화에 저항해서 음변화의 결과와 동일한 형태를 무작정 음변화의 적용을 받기 이전 상태로 돌려 놓는 것이 바로 과도교정임을 상기할 때 원래의 ㄷ을 ㄹ으로

12) 여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성규(1989)를 참조할 수 있다.

표기하는 것은 유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과도교정이 이루어진 결과는 일반적으로 표기뿐만 아니라 형태 자체도 변화하게 되는데 ‘썰리’를 ‘썰니’로 적는 경우에는 표기만 바뀌었을 뿐 형태 자체는 변화하지 않았음이 인상적이다. 가령 ‘김치’가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의 결과 ‘김치’가 되었을 때 이것은 형태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그러나 ‘썰니’는 그러한 형태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있다.

‘김치’와 ‘썰니’의 이러한 차이는 과도교정의 결과가 해당 언어의 음운론적 제약을 위반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김치’가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의 결과 ‘김치’로 바뀌었을 때 이 형태는 해당 언어의 음운론적 제약을 잘 지키고 있다. 가령 ‘김치’에서 연구개음 ㄱ과 모음 ‘이’의 연쇄는 ㄱ-구개음화가 일반적으로 첫음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음절 이하에서는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음절 이하에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은 ‘ㄱ+이’의 연쇄가 전혀 불가능한 연쇄가 아님을 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김치’에 대한 과도교정의 결과로 나온 ‘김치’는 형태의 유지가 가능했다. 그런데 ‘썰리’를 ‘썰니’로 과도교정시켰을 때 ‘썰니’의 ㄹ은 그 당시에 허용될 수 없는 음소연쇄이다. 이런 이유로 ㄹ을 ㄹ으로 표기하는 것이 형태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준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표기 차원에서만 머물렀던 것이다.¹³⁾

어중의 ㄹ을 ㄹ으로 표기하는 것이 유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적 성격을 지니다고 했을 때 남은 문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과도교정의 성격을 띠는 표기가 4세기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과도교정은 일반적으로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범위에 한정해서 나타나며 특정한 변화가 계속적인 확산을 거듭할 때 주로 나타난다. 음변화가 거의 완성되면 과도교정의 빈도는 현저히 낮아진다. 이것을 고려할 때 ㄹ을 ㄹ으로 적는 표기는 상당히 전면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특이하다. 그런

13) 이러한 논의는 표기 차원에서의 과도교정, 즉 문어(written language)에서의 과도교정과 구어(spoken language)에서의 과도교정을 구분할 근거를 마련해 준다. 과도교정의 결과가 해당언어의 음운론적 제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문어 차원에서의 과도교정에 속하겠지만 그 결과가 음운론적 제약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어 차원에서의 과도교정에 속할 것이다. 물론 구어 차원에서의 과도교정은 표기의 변화를 반드시 요구하게 된다.

데 만약 ㄹ을 ㄹ으로 적는 것이 하나의 표기적 전통으로 굳어져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특수성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9) 아돌톨(동신 열 8:44) 몰른(마경 하 12) 툼리(마경 상 16) 겨올른(두창 상 51)
 날톨(동신 열 4:74, 卍) 물레(두창 하 38) 말톨(태산 47)
 (10) 모리툼톨(마경 상 15) 여러 돌톨(동신 효 8:71) 옻다숯술논(마경 상 13) 문
 홀 줄톨(동신 열 5:33, 8:66) 칼톨 들고(동신 효 8:20)

(9)는 ㄹ로 끝나는 체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 체언 어간말 ㄹ을 받침에도 적고 후행 음절 초에도 적는 소위 중철 표기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¹⁴⁾ (10)에서는 (9)와 같이 중철 표기된 ㄹ이 ㄹ으로 표기되고 있다. ㄹ이 중철 표기된 ㄹ은 음운론적으로 /ㄹ/일 뿐 /ㄹ/이 될 수 없다.¹⁵⁾ 따라서 (10)에서 보이는 ㄹ표기는 유음화와 관련있는 것이 아니다. ㄹ이 하나밖에 발음되지 않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유음화와 연관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과 같은 표기가 모습을 보이는 것은 ㄹ을 ㄹ으로 표기하는 것이 하나의 표기적 관습이 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4)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에도 중철의 모습을 거의 보여 주지 않는다. 체언에서만 어간말 ㄹ이 중철되고 용언에서는 어간말 ㄹ이 거의 중철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단순히 체언과 용언이라는 문법 범주의 차이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가령 ‘갈-(換), 물-(咬)’와 같은 용언 어간 뒤에 부사형어미 ‘-아/어’가 올 때 중철 표기를 한다면 ‘갈라, 물리’ 등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는 ‘가르-(分), 무르-(軟)’의 활용과 같아진다. 국어에서 ‘ㄹ’로 끝나는 어간과 ‘르’로 끝나는 어간은 활용상에서 엄격한 차이를 보이며 반드시 구별해야만 한다. 따라서 ‘갈-, 물-’과 같이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대해 중철 표기를 하게 되면 어간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는 중철 표기를 거의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15) 오종갑(1988)에서는 이러한 중철 표기를 음운론적으로 폐음화에 이은 동일자음 첨가로 봄으로써 (9)와 같은 ㄹ의 중철 표기가 실제로 [ll]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동일자음 첨가 규칙은 임의 규칙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러한 규칙의 실재성(實在性)이 의심된다. 또한 폐음화라는 기제 자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의 여부와 폐음화가 중세국어로부터 근대국어로 올수록 세력을 확장하다가 그 이후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과 같이 쇠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없는 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즉, 처음에는 유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의 성격을 가지고 ㄹ을 ㄴ으로 표기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17세기에 간행되어 나온 문헌들에서는 어종의 ㄹ을 ㄴ으로 적는 것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표기 방법이 하나의 표기적 관습으로도 정착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ㄹ~ㄴ’의 표기가 유음화의 과도교정과 관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기동안 문헌에 출현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과도교정의 성격만 가지고 있었다면 ㄴ표기가 것처럼 오랫동안 문헌에 나타날 수 없었겠지만 이러한 표기가 하나의 표기적 관습으로 굳어졌다면 그 이후로도 상당 기간 동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4. 맺음말

어떤 음운 변화가 한 언어에 새로 생겨나면 이러한 변화에 저항하려는 작용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용이 과도교정이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다. 이 글에서는 16세기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모습을 보였던 ‘ㄹ~ㄴ’의 표기 역시 이러한 과도교정과 관련되어 있음을 논의했다. ㄴ이 실제로 [ln]의 음가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과 ㄹ을 ㄴ으로 적는 표기의 출현과 확산의 시기가 유음화의 출현 및 확산의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ㄹ~ㄴ’ 표기와 유음화와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게 한다. 또한 17세기부터는 ㄹ을 ㄴ으로 표기하는 것이 하나의 표기 관습으로 정착되면서 ‘ㄹ~ㄴ’ 표기는 그 이후로도 수 세기에 걸쳐 문헌들에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어종의 ㄹ을 ㄴ으로 적는 표기는 유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이 최초의 동기였고 유음화의 확산에 따라 그러한 표기가 확산되어 나갔지만, 또 한편으로는 근대국어 시기에 ㄹ을 ㄴ으로 적는 것이 하나의 표기 관습으로 굳어지면서 그 이후로도 오랜 시기동안 여러 문헌들에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다고 요약할 수 있겠다.

참고 논저

- 김동언(1990), <17세기 국어의 형태음운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김성규(1989), <활용에 있어서의 화석형>, 《주시경학보》 3.
- 김완진(1972), <형태론적 현안의 음운론적 극복을 위하여: 이른바 장모음의 경우>, 《동아문화》 11, 서울대.
- 김주원(1997), <구개음화와 과도교정>, 《국어학》 29.
- 김중진(1987), <근대국어 표기법 연구>,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 김중진(1997), <근대국어 유음표기 연구>, 《한국어문학논고》(은봉 최태영 박사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 김혜영(1996), <국어 유음의 통시적 연구>, 경남대 박사학위논문.
- 박기영(1995), <국어 유음에 대한 통시론적 고찰>, 《국어연구》 131, 서울대 국어연구회.
- 백두현(1992),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태학사.
- 신연희(1991), <19세기 전기 국어의 표기법과 음운변동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 안병희(1992), 《국어사 자료 연구》, 문학과지성사.
- 오종갑(1988), 《국어 음운의 통시적 연구》, 계명대출판부.
- 이기문(1963), 《국어표기법의 역사적 연구》, 한국연구원.
- 이기문(1972),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 이병근(1979), 《음운현상에 있어서의 제약》, 탑출판사.
- 이승녕(1971), <17세기국어의 음운사적 고찰>, 《동양학》 1, 단국대.
- 이진호(1997), <국어 어간말 자음군과 관련 현상에 대한 통시음운론>, 《국어연구》 147, 서울대 국어연구회.
- 이현희(1991), <중세국어의 합성어와 음운론적인 정보>, 《석정 이승욱선생 회갑기념논총》, 서강대 국문과.
- 전광현(1978), <18세기 전기 국어의 일고찰: 오륜전비언해를 중심으로>, 《어학》 5, 전북대.
- 전미정(1991), <19세기 국어의 음운론적 연구>,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 지춘수(1986), <국어표기사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최명옥(1985), <변칙동사의 음운현상에 대하여: p-, s-, t- 변칙동사를 중심으로>, 《국어학》 14.

최전승(1986), <언어변화와 과도교정(Hypercorrection)의 기능: 19세기 후기 전라 방언 자료를 중심으로>, 《국어학신연구》(약천 김민수교수 화갑기념논총), 탑출판사.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I)》, 태학사.